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5째주 (1월 31일)

정교회 주보



끼로스와 요한 자선 치료자

루가 제 15주일

성 끼로스와 성 요한 자선치료자

제 1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1조 부활찬양송 / 81, A 211

•주일 입당송 / 14, A 42

•청빈자들과 기적자들의 찬양송 / 85, B 178

•성당 찬양송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사도경 : 디모테오 4:9~15 / 봉독서 396

•복음경 : 루가 19:1~10 / 132, B 8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제 17회 대교구의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말씀 (2021년 1월 24일(일))

(지난주에 이어)

사목적 문제들

전염병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사목적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예배와 설교는 벌써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공동예배는 참여자 없이 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교회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가 공동예배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기간, 자연재해, 성당이나 사제가 없을 때,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침대를 벗어날 수 없을 때, 또한 가정이나 병원에서 천사들처럼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영혼만은 예배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란다면 그들의 불참은 합당한 것입니다. 전염병이 들고 있는 현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 우리 교회는 애정이 많은 어머니로서 항상 “합당한 이유로 참여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2면으로계속



하지만 하느님의 예배에 불참할 심각한 이유가 없거나, 그리스도인으로 태만과 무관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인 형제들과 대면해서 친교를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즉, 교회의 삶에 실제로 참여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온라인 구성원으로 대체하여 행동할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신성한 예배의 장소는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되는 신성한 감사의 성사 후에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거리를 두고 온라인으로만이 아닌, 생생하게 얼굴을 맞대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그리고 서로 간에 형제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에 의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다른 한편으로는 빛의 형상인 교회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에서의 친교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 * *

자기성찰의 기회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보지는 맙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첫 걸음은 자기성찰입니다. 자기성찰을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각자를 위한 자기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모두 생각해봅시다 :

몇 번이나 성당에 습관적으로 왔습니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내적 필요와 인식을 가지고 성당에 올 때입니다.

몇 번이나 신성한 감사의 성사에 회개와 뉘우침 없이 왔습니까? 이제는 신성한 양식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참여할 때입니다.

몇 번이나 유혹의 덫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또한 무서운 죄의 세균과 투쟁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이제는 악마가 우리 영혼을 독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기심이 파괴하도록 방치하였습니까? 이제는 하느님과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몇 번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있기 전에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안아줄 수 있었을 때”,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사랑과 자선의 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

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스크가 우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리따운 노래”(시편 45:1)와 “유익한 말”(골로사이4:6)을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만 입을 여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는 “귀가 무디어져서”(히브리5:11)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게으름으로 육적, 영적 귀를 닫았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루가8:8)라는 축복된 부류에 속하도록 귀를 활짝 열 때입니다.

자애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용납하신 코로나19의 교육적 시련이, 혹은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아모스8:11)라는 예언의 성취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봅시다.

희망적 메시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느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강해질수록, 하느님의 우리에게 대한 격려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요한 크리소

스토모스. EPIE 33:150) 그리고 “금세공사는 금 덩어리를 강한 불에 넣고 순금만 남을 때까지 불에 태웁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이러한 시점까지 시련을 용납하십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EPIE 37:348)

우리의 목표

다음은 2021년도 우리의 목표로 정합니다. :

첫 번째, 신자들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진실한 친교를 가꾸어 나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들과 친교를 나눕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나 올 수 있게 성당이 열린다 하더라도 다시 아이들과 청년들은 성당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도움으로 코로나19가 주는 시련이 지나가고 “직접 대면하고”(요한2서12절)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서, 하느님과 또 우리 형제들과의 올바른 친교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친교가 마음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한국대주교



주보 소식



대교구

■ 제 17회 대교구의회

2021년 제 17회 대교구의회가 지난 1월 24일 주일 성찬예배 후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이 번 대교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한국대주교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 성당의 신부님들, 그리고 운영 위원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많은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관해주셨습니다. 또한 소티리오스 피시디아의 대주교님과 미국에서 페리 보제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대교구

의회에서 보고되고 계획하고 결의된 사항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한국정교회의 발전과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실하게 실행되길 기원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25일(월)에 안토니오스 홍동완 교우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집전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항상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주간예식



2월 2일(화)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2월 5일(금) 성 아가티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